

‘이달의 환우’ 생명의 불씨 지피기 15년

병에 한 번 걸리면 가게파란은 감내해야 한다. 암 등 중대 질병 치료비는 수천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병원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최소 천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겨냥해서였다.

건강보험이 질병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 주지 못하자 몇 년전에는 1인당 1만1천원을 더 내는 대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1만1천원의 기적’ 같은 시민운동이 등장한 적도 있다.

돈이 없으면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 복지의 빈 곳을 메워주는 쪽은 아무래도 민간 몫이다.



2010년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이금성씨는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고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생명나눔 저소득 가정 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2000년부터 635명 환우에게 26억 여원 지원
매월 600만원 모연 타인 위로가 환자에게 힘

월 1명 정해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식지나 언론 등을 통해 모금한 금액을 전달한다.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교계 쪽 지원비율이 높다.

한 달 모금 금액은 대략 6~700만원이지만 1인당 수혜금액은 500만원이다. 나머지 금액은 특별지원형식으로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환자들에게 1백만원의 후원금

혹은 쌀 20kg으로 전달된다.

후원을 받은 환자들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기 일쑤다. 잠시나마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이유외에도 타인이 보여준 연대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2010년 직장암으로 생명나눔 치료비를 지원받은 유정미씨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관심에 고마워하며 매순간 이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편

과 사별하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던 중 암판정을 받고 생명나눔을 통해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천구씨 역시 신장이식에 필요한 수술비를 생명나눔을 통해 후원받았다. 이씨는 “또 다른 삶을 선물받았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에 조금씩이나마 보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환자들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필요한 이들에게 현 후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생명나눔의 장기 계획은 지원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다. 자할 가능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존 개인후원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후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생명나눔측의 설명이다. 불교계 경제인사들에게도 접근해왔지만 단 한건도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생명나눔 심정민 사무총장은 “이웃종교의 경우 종교지도자 분들이 홍보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교구별로 환자 지원사업을 하는 등 나눔에 대한 인식이 교리와 맞물려 자리잡은 덕분에 모연이 수월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후원금 역시 천만원에 달하는 등 지원규모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자들의 경우 생명나눔 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행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 역할이 부재하다”며 평소 불자들의 신뢰와 공경을 받는 스님들의 적극적 관심을 당부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스님도 이젠 가족상담 전문가

조계종복지재단, 6월 20일~22일 상담 교육 실시

포교현장 일선에서 신도들의 귀가 되어 주고 있는 전국 사찰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교육이 이루어진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승가대학교와 가족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이번 교육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회 실천력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은 2012년 시작된 이후 참가 스님들로부터 신도상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신도상담 사례중심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반영,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해왔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대한 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 및 동등한 17시간 인증을 통한 30점이 부여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사찰의 비구·비구니

스님 및 사미·사미니 스님 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불교적 가르침에 기초한 2박 3일간의 집중교육을 통해 참가 스님들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불교적 생명관과 가족관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불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이번 교육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불교의 사회 실천력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족상담 지도자 교육은 2012년 시작된 이후 참가 스님들로부터 신도상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신도상담 사례중심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반영,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해왔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본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대한 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이수 및 동등한 17시간 인증을 통한 30점이 부여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사찰의 비구·비구니

배현진 기자

맑고 향기롭게, 의료비 지원 대상 모집

맑고 향기롭게(이사장 덕운)가 제3회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6월 10일~7월 31일이며 사례 심의를 거쳐 8월 8일 지원자를 선정 발표한다. 지원대상은 병원 치료비 마련을 위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의료보호 및 수급자,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들로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수술비 등을 포함한 병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입금해준다.

신청은 각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사회복지사) 또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지역모임, 회원 등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각 1부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지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를 구비해 이메일(clean94@hanmail.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02)741-4696

정혜숙 기자

역삼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

바다지킴이·문화재가이드 등 3개 프로그램



지난달 진행된 흙사랑 희망농장 활동 모습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의 청소년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4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여바라(여수바다를 지켜라)’, ‘한국사이’, ‘물에서 날자! 비상구(飛翔口)’다.

활동프로그램에 선정된 ‘여바라’는 여수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여수로 내려가 직접 방제작업을 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사이’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공부하고 외국인들에게 해설해주는 활동이다.

‘물에서 날자! 비상구’는 지역내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1:1 짝꿍을 맺은 후 신체활동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에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수련관내 소속 댄스동아리인 ‘걸스온탑’과 중창보컬단 ‘아베스’, 밴드동아리 ‘각시탈’ 등은 올해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한편 6월 21일에는 도심 속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떠난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6월 21일 ‘흙사랑 희망농장 6기’를 인천 강화도자연체험농

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주제는 갯벌체험활동이며, 가족동물 먹이주기, 전통농기구 체험, 말갈구지타기, 보트타기, 미꾸라지 잡기 등이 이루어진다.

역삼청소년수련관장 보련 스님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흙사랑 희망농장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수련관내 소속 댄스동아리인 ‘걸스온탑’과 중창보컬단 ‘아베스’, 밴드동아리 ‘각시탈’ 등은 올해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배현진 기자

장애아동과 함께 야구 보러 가요



지난달 진행된 베스트원 야구단 발대식에서 장애아동과 멘토들이 웃고있다.

야구단 자원봉사자 모집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효진)은 지역사회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스포츠 활동 BEST ONE(베스트원 야구단) 자원 봉사자를 모집한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 야구단 사업은 장애아동들의 사회성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이상 성인으로 장애아동과 1:1 멘토-멘티 관계를 이뤄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는 문화체험활동을 돕게 된다. 활동기한은 6월부터 11월까지며 화요일이나 목요일 중 일요일에 한번 활동을 하게 된다.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다. (031)8022-1100

배현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뚝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뚝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뚝(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오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